

## 4/25(월) 에스라 묵상 19

### 에스라 10:16-4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제안대로 백성들 중에서 이방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한 자손들을 시간을 두고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13-14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 일을 조사하는 일은 약 3개월간의 시간이 걸립니다(16-17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 통혼한 자들

본문 18절 이하로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은 대제사장 예수아 자손의 명단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스 3:2 ; 5:2 ; 학 1:1 등에 의하면 예수아는 요사닥의 아들로써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스 3: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이는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모범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의 가문이 먼저 범법한 자의 명단에 올라감으로써 이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은 크고 무섭습니다. 국가가 멸망한 지 단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에 대제사장 가문은 회개하고 결단하게 됩니다(19절,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하지만 이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는 것은 진정성에 있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는 보통 부지 중에 비고의적인 죄를 짓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레 5:15, “**누구든지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리고 엄중한 죄에 비해 이들이 바친 제물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숫양을 한 마리 밖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죄를 비고의적인 죄로 여겼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했던 레위 자손의 명단이 나옵니다(23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던라**”).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21-23절의 말씀을 보면 범법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호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야’ -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료에내’ - ‘나의 눈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유다’ - ‘여호와를 찬송하라.’; ‘스마야’ -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히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웃시야’는 ‘여호와와 능력이시다’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들든 자신들의 아름다운 이름의 뜻과는 달리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빌 1: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엡 4: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 고통을 수반함

에스라서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스 10:44,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미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관계를 끊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에스라를 통한 개혁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 각성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개혁은 공동체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변화시키고 바로 서게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쾰링과 블링거, 프랑스의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개혁은 시대를 바꾸는 민족적인 종교 개혁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의 죄와 불순종은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영적인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신앙을 바로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바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개혁해야 할까요? 첫째로 나 자신부터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우리는 에스라와 같이 나 자신부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겸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멈추고 끊어버리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영적 지도자들의 회개와 각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푸틴과 러시아의 공격이 멈추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최아브라함(파키스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